



# 의·식·주 관련 소비자물가의 국제 비교 및 우리나라의 특징

윤성훈 선임연구위원, 한성원 연구원

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된 상황에서 특히 의·식·주 등 기본적인 생활과 밀접한 지출 항목의 소비자물가 변동은 체감소득과 서민가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됨.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25.2% 상승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,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(46.9%)와 의류 및 신발(34.0%) 소비자물가지수는 이보다 높은 상승세를 시현함.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8개 국가를 비교해 보면,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의·식·주에 대한 물가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. 특히 의류 및 신발의 경우 우리나라가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한 유일한 국가였음. 의·식·주 관련 물가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

- 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된 상황에서 특히 의·식·주 등 기본적인 생활과 밀접한 지출 항목의 소비자물가 변동은 체감소득과 서민가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됨

- 금년 여름의 폭염으로 채소를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서민가계 안정을 위해 무와 배추 등의 비축물량 공급을 확대하기로 함

- 본고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의·식·주 항목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를 주요국과 비교하고 특징적인 모습을 찾아보고자 함

- 우리나라 전체 소비자물가지수(전국)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25.2% 상승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, 동 기간 중 주류 및 담배가 62.7%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고, 다음으로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(46.9%), 기타 상품 및 서비스(36.1%), 의류 및 신발(34.0%), 음식 및 숙박(30.1%) 순으로 나타남(표 1) 참조

- 주택<sup>1)</sup>·수도·전기·연료(26.1%),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(25.9%), 교육(22.4%)의 경우 전체 소비자물가

1) 소비자물가지수에 주택의 경우 전세와 월세 그리고 주거시설 유지 및 보수 비용이 포함되며, 주택매매가격은 포함되지 않음

지수 상승률과 유사한 상승세를 시현함

- 전세는 36.7%로 상승률이 높았으나 월세와 전기·가스 및 기타 연료가 각각 13.8%, 7.8% 상승에 그침에 따라 주택·수도·전기·연료 물가의 경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
- 보건(13.5%), 교통(11.1%), 오락 및 문화(9.7%)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고, 통신의 경우 지수가 6.5% 하락함
- 통신은 IT 기술 발달에 따라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보임
- 한편, 기타 상품 및 서비스 항목에 포함된 자동차보험료, 금융수수료, 행정수수료의 경우 각각 -1.3%, -31.8%, 27.6% 상승함

〈표 1〉 지출 항목별 소비자물가지수(2005=100) 추이 및 상승률

(단위: %)

| 구분           | 2007년   | 2017년   | 2007~2017년 |
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
|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| 72.0    | 105.8   | 46.9       |
| 주류 및 담배      | 62.8    | 102.2   | 62.7       |
| 의류 및 신발      | 76.8    | 102.9   | 34.0       |
| 주택 수도 전기 연료  | 80.0    | 100.9   | 26.1       |
| (전세)         | (77.7)  | (106.2) | (36.7)     |
| (월세)         | (88.3)  | (100.5) | (13.8)     |
| (전기·가스·연료)   | (81.6)  | (88.0)  | (7.8)      |
|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| 81.6    | 102.7   | 25.9       |
| 보건           | 89.8    | 101.9   | 13.5       |
| 교통           | 91.2    | 101.3   | 11.1       |
| 통신           | 107.4   | 100.4   | -6.5       |
| 오락 및 문화      | 92.9    | 101.9   | 9.7        |
| 교육           | 84.0    | 102.8   | 22.4       |
| 음식 및 숙박      | 80.7    | 105.0   | 30.1       |
| 기타 상품 및 서비스  | 78.1    | 106.3   | 36.1       |
| (자동차보험료)     | (103.8) | (102.5) | (-1.3)     |
| (금융수수료)      | (146.4) | (99.9)  | (-31.8)    |
| (행정수수료)      | (78.4)  | (100.0) | (27.6)     |
| 전체           | 82.2    | 102.9   | 25.2       |

자료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

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, 일본, 영국, 프랑스, 캐나다, 독일, 대만 등 8개 국가를 비교해보면, 의·식·주 관련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임(표 2) 참조)

- 본고에서 의·식·주는 <표 1>에서 각각 의류 및 신발,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, 주택·수도·전기·연료를 의미함
- 지난 10년간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의 경우 영국이 26.4%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,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 25.2%, 미국 17.4%, 캐나다 16.8%, 독일 13.7%, 프랑스 10.7%, 대만 10.3%, 일본 1.5%였음
- 모든 국가에서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이상으로 상승하였는데, 우리나라 상승률이 46.9%로 가장 높았고, 이후 영국 30.2%, 캐나다 28.4%, 대만 28.3%, 독일 23.3%, 미국 21.3%, 프랑스 12.1%, 일본 9.7%였음
-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보다 일본은 6.5배<sup>2)</sup>, 대만은 2.7배, 우리나라는 1.9배, 캐나다와 독일 1.7배, 미국 1.2배, 영국과 프랑스 1.1배 높았음

〈표 2〉 주요국 지출 항목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(2007~2017년)

(단위: %, 배)

| 구분                 | 한국               | 미국            | 일본             | 영국               | 프랑스              | 캐나다            | 독일               | 대만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      | 46.9<br>(1.9)    | 21.3<br>(1.2) | 9.7<br>(6.5)   | 30.2<br>(1.1)    | 12.1<br>(1.1)    | 28.4<br>(1.7)  | 23.3<br>(1.7)    | 28.3<br>(2.7)   |
| 의류 및 신발            | 34.0<br>(1.3)    | 2.0<br>(0.1)  | -2.0<br>(-1.3) | -8.7<br>(-0.3)   | 6.9<br>(0.6)     | -1.4<br>(-0.1) | 11.5<br>(0.8)    | 4.5<br>(0.4)    |
| 주택 수도 전기 연료        | 26.1<br>(1.0)    | 20.3<br>(1.2) | -0.7<br>(-0.5) | 45.2<br>(1.7)    | 21.7<br>(2.0)    | 16.8<br>(1.0)  | 14.9<br>(1.1)    | 4.1<br>(0.4)    |
| 참고<br><보건><br><교육> | <13.5><br><22.4> | -<br>-        | <br><1.2>      | <25.5><br><93.9> | <-6.4><br><22.4> | <15.5><br>-    | <10.8><br><-0.2> | <10.4><br><0.8> |
| 전체                 | 25.2             | 17.4          | 1.5            | 26.4             | 10.7             | 16.8           | 13.7             | 10.3            |

주: 1) ( )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대비 개별 항목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(단위: 배)

2) 우리나라, 영국, 프랑스, 독일은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 항목이 12개, 미국은 9개, 일본은 10개, 캐나다는 8개, 대만은 7개로 직접적인 비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

자료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; 블룸버그; 일본 통계청

- 의류 및 신발의 경우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낮게 상승하였으며, 일본, 영국, 캐나다에서는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함
- 우리나라는 의류 및 신발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34.0%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1.3배에 달함
- 주택·수도·전기·연료는 대체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만큼 상승하였으나, 영국, 프랑스에서 상승률이 이

2) 일본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소비자물가지수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2014년부터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화 약세로 빠르게 상승함

보다 높았고, 일본은 마이너스 상승률<sup>3)</sup>을 보임

- 참고로 비교 가능한 항목인 보건과 교육을 보면, 보건은 일반적으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수준으로 지수가 높아졌으나, 우리나라, 프랑스 및 독일에서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보다 낮았고, 교육의 경우 영국에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보다 3배 이상, 프랑스에서도 2배 이상 상승하는 특징을 보였음

■ 본고에서 살펴본 8개 국가 중, 일본, 프랑스 및 우리나라가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대비 의·식·주 관련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높은 국가인 것으로 나타남(표 3) 참조

-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개별 지출 항목의 가중치가 국가별로 다르나,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중치(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137.7, 의류 및 신발 61.4, 주택·수도·전기·연료 170.2)를 모든 국가에 적용함
- 가중치를 감안하여 의·식·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35.2% 상승하였고, 이후 영국 30.6%, 캐나다 18.1%, 미국 17.5%, 독일 17.4%, 프랑스 15.6%, 대만 13.2%, 일본 3.0% 순이었음
-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대비 의·식·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, 일본 2.0배, 프랑스 1.5배, 우리나라 1.4배, 독일 1.3배, 대만 1.3배, 영국 1.2배, 캐나다 1.1배, 미국 1.0배로 일본, 프랑스 및 우리나라의 의·식·주 물가 부담이 가장 많이 높아진 것 나타남
  - 그러나 일본과 프랑스의 의·식·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각각 3.0%, 15.6%로 우리나라 35.2%에 비해 크게 낮음

〈표 3〉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및 의·식·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

(단위: %, 배, %p)

| 구분       | 한국   | 미국   | 일본  | 영국   | 프랑스  | 캐나다  | 독일   | 대만   |
|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의·식·주(A) | 35.2 | 17.5 | 3.0 | 30.6 | 15.6 | 18.1 | 17.4 | 13.2 |
| 전체(B)    | 25.2 | 17.4 | 1.5 | 26.4 | 10.7 | 16.8 | 13.7 | 10.3 |
| A/B      | 1.4  | 1.0  | 2.0 | 1.2  | 1.5  | 1.1  | 1.3  | 1.3  |
| A-B      | 10.0 | 0.1  | 1.5 | 4.2  | 4.9  | 1.3  | 3.7  | 2.9  |

- 한편, 의·식·주 소비자물가지수와 전체 소비자물가지수간의 상승률 차이를 보면 우리나라 10.0%p로 가장 높고, 그 다음으로 프랑스 4.9%p, 영국 4.2%p, 독일 3.7%p, 대만 2.9%p, 일본 1.5%p, 캐나다 1.3%p, 미국 0.1%p이었음

3) 일본의 경우 주택과 전기·수도·연료가 별도로 발표되고 있는데, 동 기간 중 각각 -4.0%, 8.5% 상승하였음. 본고에서는 주택 지수 및 전기·수도·연료 지수와 일본 가중치(각각 2,087, 745)를 이용하여 가중 평균 상승률을 계산하였음

-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년간 주요국에 비해 의·식·주에 대한 물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
- 특히 의류 및 신발의 경우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는 원인을 찾아보는 한편,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보다 2배 정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에 대한 물가 관리가 필요해 보임 **kiri**